

## 대통령 연설문 한서 기계번역의 언어간섭 양상 분석 — 인간번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 영 주  
(덕성여대)

### 1. 서론

2016년 구글이 신경망 기반의 번역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AI 번역 품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자 발전된 형태의 기계번역 품질을 확인하고, 신경망 기계번역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고자 국내 학계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sup>1)</sup>. 최근 논의의 관심사는 기계번역의 오류를 유형화하는 연구(기유미 2018; 서보현, 김순영 2018; 진소영 2019)에서 포스트에디팅(post-editing)이나 프리에디팅(pre-editing)을 통해 AI 번역기와의 공생을 도모하는 연구(이상화, 김세현 2018; 이상빈 2018; 한현희 2019)로 방향을 옮기고 있는 듯하다. 포

스트에디팅은 스페인의 기계번역 연구에서도 주요 주제로 자리 잡았다. 스페인 학자들의 관심은 단순히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고찰(Sánchez-Gijón 2016)에서 벗어나 이를 외국어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Zhang and Torres-Hostench 2019), 나아가 포스트에디팅과 생산성(productivity) 및 번역품질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Aranberri 2014; López-Pereira 2019) 등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자동 기계번역과 포스트에디팅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는 실태조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Torres-Hostench, Presas and Cid-Leal 2015<sup>2)</sup>).

그러나 기계번역을 활용하는 방안 못지않게 기계번역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일도 여전히 중요하다. 포스트에디팅이나 프리에디팅의 목적 역시 결국 기계번역으로 얻은 결과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번역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 분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을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기계번역은 인간번역에서 주로 관찰되는 정보격차 중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도착어로 옮기는 경향이 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시(時) 번역을 비교한 김동미(2018: 80-81)는 인공지능이 구체적인 하위개념을 활용하지 못하고 직역을 하여 문맥의 특성을 전혀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홍은영, 탁진영(2020: 1543)은 스티브 잡스의 영어 연설문과 기계번역을 총 5건의 인간번역과 대조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기계번역의 결과물이 연설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 문법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구문을 사용하고, 사전적 의미에만 치중한 직역을 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정보적(informative) 텍스트의 한국어-러시아어 기계번역 오류를 유형화하고 프리에디팅 규칙을 제안한 한현희(2019: 304)는 분석한 데이터에서 나타난 단어나 절 구조 관련 오류가 러시아어 고유의 통사규칙을

1) 이상빈(2020: 77)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지난 10여 년간 통번역학 저널에 발표된 기계번역 논문은 54편, 다른 인문학 저널에 게재된 관련 논문은 157편에 이른다(기계번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만 해당).

2) 이 연구는 2016년 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UAB)가 스페인 경제부 지원을 통해 실시한 프로젝트(ProjecTA)의 일환으로 발표한 보고서이다. 동 프로젝트는 자동 기계번역과 포스트에디팅이 스페인의 언어서비스 관련 기업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계번역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UAB는 이밖에도 TRACE(Traducción Asistida, Calidad y Evaluación)라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발족하여 CAT 사용자인 번역사를 위한 번역도구 개발과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http://grupsderecerca.uab.cat/tradumatica/es>).

무시하고 원문의 구조를 직역하여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기계번역이 원문의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구성배열까지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다.

기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계번역은 배경지식이나 맥락정보를 활용해 의미를 증대하기보다는 원문을 직역(literal translation)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인간번역과의 질적 차이를 만드는 요인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출발 언어의 특징이 도착 언어에 이전되는 언어간섭(language interference) 현상을 직역과 이에 따른 기계번역의 오류<sup>3)</sup>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기계번역에서 언어간섭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오류를 구분하고, 원문의 어떠한 요소가 번역문에서 그대로 이전되어 해당 오류를 야기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으로 대통령 연설문을 선정하였다. 연설문은 정보전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와 달리 ‘말하고 듣는’ 능동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특히 대통령 연설문을 번역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자국민 또는 상대국의 국가수반과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므로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 연설이라는 담화 특성상 높은 수준의 격식성이 요구되므로 이에 맞는 어휘와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 셋째, 연설문은 궁극적으로 ‘말하기’ 위한 텍스트이므로 도착어 언어관습에 맞는 자연스러운 문장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언어간섭에 따른 번역 오류를 살펴보는 본 연구의 분석 텍스트로 대통령 연설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언어간섭으로 인해 적절한 의미를 중개하지 않고 직역할 경우, 내용이 잘못 전달되어 연사의 의도가 왜곡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문체 탓에 연설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연설문이 통역사들의 실무뿐만 아니라 통번역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텍스트 유형<sup>4)</sup>이므로 연설문을 분석한 결과가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작

용하였다.

연설문이 통번역 업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설문의 기계번역을 다룬 연구는 극소수이다(이미경 2019; 홍은영, 탁진영 2020). 대상 언어가 스페인어인 연구는 주제와 텍스트 종류를 막론하고 전무한 실정이다<sup>5)</sup>. 한현희(2019: 296)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 한국어가 포함된 다양한 외국어 기계번역의 오류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기계번역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언어 쌍 별로 기계번역의 장단점 비교가 불가피하다.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텍스트도 신문기사, 매뉴얼, 문학작품 등 다양하나 여러 유형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새로운 언어 쌍과 텍스트 유형을 다룬 연구가 축적된다면 기계번역의 일반적인 특징을 규명하고, 향후 포스트에디팅이나 프리에디팅을 통해 기계번역의 품질을 향상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언어간섭

투리(Toury)는 1995년 언어간섭의 법칙(law of interference)을 담화 전이(discourse transfer)와 함께 번역 법칙으로 제시하였다. 투리는 언어간섭의 법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번역에서 출발 텍스트의 구성(make-up)과 관련된 제반 현상은 도착 텍스트에 전이되는 경향이 있다(1995: 275)

다는 답변이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고 학년에 관계없이 가장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결과를 상기하였다.

5) 필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홈페이지에서 스페인어 데이터를 분석한 기계번역 관련 연구를 검색한 결과 1건의 연구(임효상 2018)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아닌 학술대회 발표집에 실린 짧은 분량의 연구인데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도 하나의 완전한 텍스트가 아닌 비교적 단순하고 길이가 짧은 문장 단위에서 통번역학 분야에 적용할만한 사례를 찾지 못하였다.

3) 본 연구에서 오류는 오역과 그 외 도착어 시스템의 기준에서 적합하지 않은 결과물(번역투, 어색한 문장구성, 텍스트 관습에 맞지 않은 언어사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오역은 상황에 따라 ‘내용 오류’나 ‘원문 메시지 왜곡’ 등으로 바꾸어 표현될 수 있다.

4) 박세리(2015: 83)는 국내 통역대학원 석사 과정의 교강사 13인을 대상으로 한 최문선(2013b)의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연설문, 논평 및 사실을 통역 교육에 사용한

투리는 언어간섭이 실제 번역에서 얼마만큼 작용하는지는 출발 텍스트 구성의 범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투리에 따르면 언어간섭은 출발 텍스트를 하나의 개체(entity)이자 전체 메시지로 보느냐, 혹은 하위 수준의 언어적 개체의 배열(organization)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ibid). 즉, 원문의 어휘나 통사와 같은 언어적 특징이 번역문에 모방되는 양상은 번역 단위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번역에서 관찰되는 언어간섭은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독자 입장에서 언어간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는 번역투(translationese)일 것이다. 도착어 언어관습에 부적합하거나 어색한 문장이 바로 그것이다. 본 연구는 언어간섭의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계번역이 언어간섭으로 인한 오역, 번역투 등의 오류를 인간번역에 비해 더 많이 포함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오류는 등가(equivalence)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나이다(Nida 1964)는 등가의 개념을 형태적 등가(formal equivalence)와 동태적 등가(dynamic equivalence)로 구분하였다. 나이다는 형태적 번역에 대해 “형태적 특징(formal features)은 텍스트 전반의 의미를 형성하는 맥락적 가치를 담고 있을 경우에 한해 보존된다”고 하며 직역과 구분하고자 하였다(Hatim and Munday 2004: 41). 동태적 등가 역시 맥락적 가치와 효과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형태가 아닌 내용 지향적(content-bound)이라는 점에서 형태적 등가와 구분된다. 결국 등가는 번역사가 출발 텍스트의 의미를 해치지 않으면서 최대한 도착어 언어권에서 수용할만한 어휘나 문장구조로 옮길 때 달성되는 가치로 이해된다.

투리(1995: 275)는 언어간섭은 기본적으로(default) 발현되는 것이어서 특수한 조건이 마련되거나 번역사의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만 간섭 현상을 상쇄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때 “번역사의 특별한 노력”은 인간 번역사에게만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언어간섭이 상쇄될 여지가 적은 기계번역은 등가를 구현하지 못해 오류가 많은 번역물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AI 번역기가 언어간섭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을 감별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한다면 내용과 형태 측면에서 등가가 구현된 번역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분명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현재 수준의 기계번역에서 언어간섭 현상이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이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 2.2 대통령 연설문의 장르관습

대통령 연설문은 단순한 웅변이 아닌 향후 국민의 실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정운영에 관한 철학이 응축되어 있는 텍스트이다(김영주 2013: 88). 대통령의 정치언어는 그 파급효과의 크기와 기록으로서의 역사적 중요한 가치를 띠는 만큼 가장 정제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김철휘 2015; 한현희 2016: 206 재인용). 전술한 내용만 보더라도 대통령 연설문이 다른 텍스트와 차별되는 담화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연설문은 기본적으로 라이스(1971)<sup>6)</sup>가 분류한 텍스트 유형에 따라 작용적(operative) 텍스트 유형에 해당한다. 작용적 텍스트는 지시적(appellative) 텍스트로서 텍스트 수용자를 설득하는 호소적 기능이 특징이다.

라이스와 페어메어(Reiss and Vermeer 2010: 169)는 관습이 모든 언어 및 텍스트의 모든 층위에서 나타난다고 하며, 어휘, 문법, 텍스트 구조, 텍스트 구성, 텍스트 형식 패턴, 구두법 등을 관습이 나타나는 층위로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주(2019: 1)는 특정 장르의 언어사용 패턴이 장르관습과 결부되는 점을 지적하고, 장르관습을 따르지 않은 텍스트는 수용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노지은, 이지민(2015: 93)은 장르관습을 “특정한 사회적·문화적 언어참가자가 특정한 목적으로 반복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특징적 어휘와 텍스트 구성 형식”으로 정의하였다.

종합하자면 대통령 연설문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서 문어체와 구어체가 혼합되어 있다. 특히 대통령의 연설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담화이므로 번역 시 이에 걸맞게 격식 있는 언어 사용이 요구된다. 또한 대통령의 연설은 대개 자국민 혹은 해외 공식 방문의 경우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추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번역 시 내용상 흠결이 없어야 하고 발언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1에서 논한 등가의 개념은 형식과 내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능주의

6) 라이스(Reiss 1971)는 텍스트 유형을 정보적(informative), 표현적(expressive), 작용적(operative)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기능적 특징과 번역방법을 제시하였다(Munday 2001: 74).

관점에서 볼 때 번역할 텍스트의 유형 또는 장르에서 요구되는 관습적 요소를 도출어에 잘 녹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티姆과 메이슨(Hatim and Mason 1990: 48)이 지적하였듯이 사용자가 관습적 상황(conventional situation)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3. 연구 방법

#### 3.1 분석대상

대통령 연설문의 기계번역에 미치는 언어간섭의 영향을 살펴보고 인간번역과 비교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한국어로 작성된 원문과 실제 전문 번역사가 번역한 텍스트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16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멕시코 공식방문 당시 낭독된<sup>7)</sup> 세 종류의 연설문을 원천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연설문이 발화된 담화 상황은 기자회견, 공식오찬, 그리고 비즈니스포럼이다. 세 연설문 모두 한국어-스페인어 동시통역으로 전달되었으며, 통역사는 사전에 한국어 원고를 입수해 미리 스페인어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sup>8)</sup>.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통역사가 스페인어로 번역해 문서화한 텍스트를 확보하고 이를 기계번역(MT)과 대조할 인간번역(HT)으로 삼았다.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을 비교할 때 비교 대상인 인간번역의 품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늘 남는다. 인간 번역사가 작업한 번역물의 완결성에 대해서는 마땅히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간 번역문이 통번역대학원에서 정규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10년 넘게 통번역을 수행해 온 전문 통역사의 번역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데이터의 품질을 평균 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이 인간번역이 기계번역에 비해 우월하다는 주장을 하기 보다는 언어간섭이라는 관점에서 기계번역의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인간번역과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기계번역은 한국어 원문을 구글 번역기에 입력하여 얻은 결과물로 수집하였다. 또한 문단 간의 논리적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장이나 문단이 아닌 한국어 텍스트 전체를 입력하여 MT를 확보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텍스트의 담화 상황별 문장 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분석대상 텍스트 유형별 단어 수

구분	ST	HT	MT
오찬사(T1)	272	507	421
공동기자회견(T2)	535	948	882
비즈니스포럼(T3)	882	1431	1394
총 단어 수	1689	2886	2697

#### 3.2 분석방법

3.1에서 기술한 방식에 따라 수집한 텍스트들은 그림 1과 같이 엑셀 파일에 텍스트 유형별로 ST, HT, MT를 나란히 정렬하였다. 언어간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어휘뿐만 아니라 문장 단위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문장을 분석 단위로 하고, 각 문장마다 Tn-N 식으로 예시 번호를 표기하였다. 사전에 분석 유무를 정해 코딩한 후 객관적인 통계 결과를 제시하는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기에는 본 연구의 코퍼스 규모가 작다고 판단하여 정성적 분석방식을 택하였다.

- 7) 실제 현장에서 박 전 대통령은 참모진이 사전에 작성한 원고를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읽었기에 ‘낭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해당 연설문이 ‘통역’을 통해 구두로 전달되었지만, 통역사가 발화한 텍스트는 통역사에 의해 ‘번역’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 8) 연설문을 동시통역하는 경우 원고가 입수된 시점과 무관하게 통역할 텍스트를 사전에 번역하여 텍스트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대통령 담화라는 특수한 상황이 통역사로 하여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분석용 엑셀파일 예시

	ST	HT	MT
T2-1	우선, 저와 저희 대표단에 대한 Peña Nieto 대통령님과 멕시코 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Antes que nada quisiera expresar mi gratitud al Presidente Enrique Peña Nieto y su gobierno, así como al pueblo mexicano por la cálida hospitalidad que brindaron a mi persona y a la delegación que me acompaña.	En primer lugar, <b>gracias</b> , Presidente Peña Nieto, el gobierno mexicano, y la <b>cálida hospitalidad de la gente para mi delegación</b> .
T2-2	저는 이번 멕시코 방문 및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멕시코의 찬란한 고대문명의 승결과 오늘날 멕시코의 역동성을 보면서 멕시코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on esta visita oficial y la reunión cumbre (celebrada el día de hoy), que me permitieron vivir las huellas de las grandes civilizaciones antiguas y el dinamismo de México, pude testimoniar que este país tiene un futuro promisorio.	A través de esta visita a México y la cumbre de hoy, pude ver el brillante futuro de México al observar la impresionante civilización mexicana y la dinámica de México hoy.
T2-3	한국과 멕시코 모두 APEC의 회원국이자 MIKTA의 공동 주도국으로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중견국이라는 점에서도 양국은 이해를 깊이 합니다.	Corea y México, ambos <b>somos</b> miembros del APEC, somos colideres de MIKTA, y <b>somos</b> potencias medianas comprometidas por la paz y la prosperidad de sus regiones. Así compartimos los intereses en diversos aspectos.	Tanto Corea como México <b>son</b> miembros de APEC y co-líderes de MIKTA, y <b>comparten</b> el mismo entendimiento de que también son países medianos que trabajan juntos por la paz y la prosperidad en la región.
T2-4	또한, 철저한 구조개혁 정책 추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는 점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깊게 합니다.	Otra <b>coincidencia se puede encontrar en las exhaustivas reformas estructurales</b> que ambos gobiernos están impulsando en aras de generar empleo y crear nuevos motores de crecimiento.	Además, <b>creamos solidaridad en la creación</b> de empleos y la creación de nuevos motores de crecimiento <b>a través de políticas exhaustivas de reforma estructural</b> .
T2-5	이러한 공동인식의 토대 위에서 저는 오늘 Peña Nieto 대통령님과 만나, 양국간 실질협력을 어떻게 보다 강화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회담을 가졌습니다.	<b>Fue bajo esta conciencia compartida</b> que mi encuentro del día de hoy con el Presidente Enrique Peña Nieto tuvo como prioridad <b>abordar las formas de hacer más robusta y sustancial la cooperación bilateral</b> .	<b>Sobre la base de este reconocimiento conjunto</b> , me reuní con el presidente Peña Nieto hoy y celebré una conferencia conjunta en cómo fortalecer la cooperación real entre los dos países.

T1, T2, T3의 개별 문장에 대해 우선 ST와 MT를 대조하여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한 뒤 동일한 문장이 HT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비교하였다. 이때, HT에서 같은 오류가 관찰되지 않거나 MT의 오류가 없더라도 HT와 차이점을 보일 경우 다시 세 텍스트를 비교대조하여 해당 오류 또는 HT와의 차이점이 언어간섭에 의한 것인지, 그렇다면 구체적인 간섭요인은 무엇이며 그 결과 어떠한 형태로 오류 또는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MT의 품질 평가가 불분명하여 원문의 특정 문장을 다시 구글 번역기에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얻은 결과가 연구 초기에 수집한 MT와 상이한 경우가 있었다.

예시 1)9)

ST: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조속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양자적인 차원은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파트너십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MT1: En el futuro, los dos líderes continuarán realizando la desnuclearización. Desarrollaremos asociaciones en el escenario internacional, así como a nivel cuántico.

MT2: En el futuro, los dos líderes continuarán desarrollando asociaciones no solo a nivel bilateral, sino también en el escenario internacional para lograr rápidamente la desnuclearización de la península coreana.

9) MT1은 6월 중순경, MT2는 8월 중순경에 수집한 텍스트임을 밝혀둔다.

예시 1)의 ST를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구글 번역기에 입력할 당시 MT1과 같이 한 문장으로 된 원문이 두 문장으로 나뉘어 번역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경우 언어간섭의 요인이나 양상을 특정할 수 없었기에 구글 번역기에 다시 해당 ST를 입력하여 동일한 번역물을 생산해본다. 그 결과 MT2와 같이 개선의 여지는 있으나 수용 가능한(acceptable) 새로운 번역물이 도출되었다. 이는 이상빈(2020: 86)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계번역의 성능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예시 1) 이외에도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다시 번역기를 돌렸을 때 다른 결과가 양산되는 3건의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분석 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분석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중순 1차 데이터 수집 당시 얻은 기계번역 결과물만을 MT로 삼기로 하였다.

MT를 ST, HT와 대조 분석한 결과 언어간섭의 영향은 크게 내용 오류와 문장구성 방식의 차이로 나타났다. 내용 오류는 언어간섭의 결과로 원문의 내용이 틀리게 번역된 경우, 즉 오역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내용 오류를 야기한 요인은 <표 2>와 같이 범주화할 수 있었다.

<표 2> 내용 오류 요인 범주화

대범주	소범주
통사적 요인	격조사, 연결어미, 의존명사, 관형어, 부사어 등
맥락적 요인	행간의 의미파악, 배경지식, 단락 간 연결성 등
문법적 요인	관사, 시제, 인칭, Se-용법, 동사변형, 전치사 등
관습적 요인	장르관습, 인용관습 등

이외에도 누락, 첨가, 동일한 어휘 반복, 정서법 오류 등 원문과 대조했을 때 오역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이 관찰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언어간섭으로 발생한 오역만 포함하였다.

문장구성 방식의 차이는 오역은 아니나 언어간섭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주로 원문의 구조나 형태에 지나치게 충실한 결과 문장구성이 HT와 비교했을 때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이때 예시 2)의 밑줄과 같이

원문과 무관하게 번역사의 개인적인 선호나 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예시 2)

ST: 양국 국민들의 만남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서 양국이 영원한 친구이자,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MT: Las reuniones e intercambios entre los pueblos de ambos países se han vuelto más activos,<sup>10)</sup> Deseamos que ambos países sean amigos eternos y verdaderos socios que abran el futuro juntos.

HT: Deseo que haya más encuentros e intercambios entre nuestros pueblos, a medida que las dos naciones se conviertan en amigos para siempre y socios genuinos, abriendo conjuntamente el futuro que nos espera<sup>11)</sup>.

분석 결과 문장구성 방식의 차이는 크게 첫째, 원문 구조의 무분별한 모방, 둘째, 통역모드에 대한 이해 부족, 셋째, 담화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에 의해 발생하였다.

‘원문 구조의 무분별한 모방’은 원문에서 벗어나 유연한 구조로 번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문의 품사조합 내지 문장형태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 ST와 내용 상 틀린 부분은 없으나, 도착어 기준으로 볼 때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번역된 경우를 말한다.

‘통역모드에 대한 이해 부족’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설문이 본래 동시통역을 통해 전달되는 텍스트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ST의 동시통역을 담당할 통역사는 응답 동시 모드로 해당 텍스트를 통역한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번역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와 어순이 반대인 스페인어로 번역함에 있어 문장 전체를 한 단위로 하여 번역하기 보다는, 원문이 담고 있는 아이디어 순서대로 분할하여 번역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해야만 말 그대로 ‘동시’ 모드로 통역을 하며 연사의 발화속도를 따라갈 수 있고, 연사가 즉석에서 문장을 수정하는 돌

10) 첩표 오류는 기계번역 번역물 그대로이다.

11) HT는 ‘우리 앞에 놓인 미래’로 번역함으로써 원문에는 없으나 수사적인 요소를 가미하였다.

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화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은 텍스트가 사용된 담화상황이 최고 고위급인 대통령의 연설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를 의미한다. 내용 오류와 같은 오역은 아니나, MT에서 공식오찬, 기자회견, 비즈니스포럼이라는 담화상황과 맞지 않은 표현이 사용되거나 대통령의 발언에 기대되는 격식성이 부족한 사례를 해당 범주로 분류하였다.

## 4. 분석 결과 및 논의

### 4.1 내용 오류

분석한 텍스트 MT1, MT2, MT3 모두 ST에서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와 다르게 번역된 내용 오류가 관찰되었다. 이들 오류를 살펴본 결과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요인들이 작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빈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통사적 요인으로 문장성분 간의 관계를 잘못 해석함에 따라 오역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4.1.1 통사적 요인

여러 통사적 요소 중 격조사, 연결어미, 의존명사, 관형어, 부사어 등이 원문과 다른 번역물을 야기한 원인이 되었는데, 이 중 격조사로 인한 오류가 가장 많았다.

예시 3) T1 격조사 - 처격조사 ‘에서’+특수조사<sup>12)</sup> ‘도’

ST: 저는 이번 멕시코 방문을 통해, **여유로운 속에서도** 강인함과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멕시코 국민들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MT: A través de esta visita a México, pude sentir la fuerza del pueblo

12) 격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나타내 주는 조사들로 ‘주격조사’, ‘처격조사’와 같이 이름이 따로 없다(이익섭 2005:143). 특수조사는 의미를 더하는 것이 외에 특별한 기능이 없으므로 비록 처격조사 단독으로 쓰인 것이 아닐지라도 격조사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mexicano con fuerza y persistencia, **incluso en mi tiempo libre.**

HT: Durante esta visita, pude sentir en carne propia la fuerza de la población mexicana proveniente de su perseverancia y vitalidad, **sin perder la calma y la tranquilidad.**

예시 3)은 처소(處所)를 나타내는 처격조사 ‘에서’와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특수조사 ‘도’가 결합된 ‘여유로움 속에서도’와 연결되는 문장성분을 잘못 해석한 경우이다. 원문의 의도는 멕시코 국민들이 여유로움 속에서도 강인함과 끈질긴 생명력을 지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인데, 기계번역은 이 부분을 화자인 대통령이 멕시코 방문 중 여가 시간이 났을 때 멕시코 국민의 그러한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는 식으로 오역하였다. 반면, 인간번역은 ‘여유로움 속에서도’라는 다소 번역하기 까다로운 부분을 ‘평정심과 차분함을 잃지 않으면서’라고 번역함으로써 ‘강인함과 끈질긴 생명력’과 대비되는 효과를 주며 원문의 속뜻을 살리고자 하였다. 예시 4)는 또 다른 격조사 오류로, 속격조사 ‘의’가 관계를 잘못 파악한 사례이다.

예시 4) T2 격조사 - 속격조사 ‘의’

ST: 이러한 측면에서 양국 간 FTA 협의 개시와 **1) 한국의 TPP 가입** 시 **2) 멕시코의 지지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년 4분기 중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MT: En este sentido, es profundamente significativo que hayamos acordado realizar una consulta a nivel de trabajo en el cuarto trimestre de este año para discutir las negociaciones del TLC entre los dos países y cómo **2) apoyar a México** al unirse al **1) TPP de Corea.**

HT: En este contexto, considero significativo el hecho de que hayamos acordado celebrar una reunión de trabajo durante el cuarto trimestre de este año que tendrá por objeto iniciar las consultas bilaterales para firmar un TLC y abordar **2) las formas de apoyo de México a 1) la eventual adhesión de Corea al Acuerdo Transpacífico o TPP.**

속격조사 ‘의’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서 두 명사의 소속 관계를 나타낸다(이익섭 2005: 129). 예시 4)의 원문 1)에서 ‘의’는 ‘한국’과 ‘(TPP) 가입’을 이어주

는 역할을 한다. 인간번역은 속격조사로 연결된 두 명사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번역한 반면, 기계번역은 ‘TPP’를 ‘한국’의 소유물로 잘못 해석하여 한국이 TPP에 가입하는 것이 아닌 한국이 고안한 TPP에 멕시코가 가입하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예시 4)는 이외에도 속격조사에 의한 또 다른 오류가 관찰되었다.

예시 4)의 ST는 한국의 TPP 가입과 관련하여 멕시코가 ‘한국을’ 지지하는 방안에 대한 것인데, 기계번역은 이 경우에도 ‘멕시코의 지지방안’이 내포하는 소속 관계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그러나 이익섭(2005: 129)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의’를 중심으로 한 앞뒤 명사의 의미 관계는 단순하지 않고, ‘의’의 쓰임의 범위가 다양하여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를 한두 가지로 추출해 내는 일이 쉽지 않다. 이 예시를 보더라도 인간 번역사가 AI 번역기와 달리 맥락정보, 배경지식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의미를 중개하기 때문에 미묘한 통사적 구조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어의 주격조사도 그 위치에 따라 의미 파악이 모호한 때가 있다. 예시 5)와 같이 문장 안에 서술절이 들어 있어 주어와 둘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그러하다.

예시 5) T3 격조사 - 주격조사 ‘이’

ST: 한국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중 하나로 육성하고 있는데, 제약, 원격의료,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성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MT: Corea está fomentando la industria de la biosalud como uno de los pilares de la economía creativa, y **se está activando un crecimiento** centrado en los productos farmacéuticos, la telemedicina y los dispositivos médicos.

HT: En Corea, la industria de biosalud constituye uno de los pilares de la economía creativa y **está creciendo** cada vez más con enfoque en el sector farmacéutico, la telemedicina y los dispositivos médicos.

원문을 언뜻 보면 ‘한국(주어1)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중 하나로 육성(동사1)’과 ‘제약, 원격의료, 의료기기 중심으로 성장(주어2)이 활성화(동사2)’라는 두 아이디어가 문법적으로 분리되어 주어와 동사가 각각 두 개 인처럼 보인다. 그런데 화자의 의도를 살려 이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자면, ‘바이오헬스 산업(주어1)은 창조경제의 핵심 중 하나로 육성되고 있으며(동사1)

계약, 원격의료, 의료기기 중심으로 성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동사2)’라는 한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때, 두 번째 동사구인 ‘성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에서 ‘성장이’는 주격조사 ‘이’를 동반하고 있어 자칫 새로운 주어로 읽힐 수 있으나, 이는 보어 자리에 주격조사가 쓰인 것으로 다른 언어에서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이익섭 2005: 144).

예시 5)의 HT는 위와 같이 바꿔 쓴 문장처럼 ST를 해석함으로써 육성되고 있다는 아이디어는 생략했지만 바이오산업을 주어로 하여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MT는 원문의 문장성분을 있는 그대로 옮겼는데, 그 결과 바이오산업과 성장이 분리된 아이디어로 번역되어 어떤 성장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불분명한 문장이 되었다. 한국어는 주격조사가 문장 내 어떤 자리에 쓰이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지만, 번역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격조사가 존재하지 않는 스페인어로 그대로 옮길 경우 예시 5)의 MT와 같이 원문의 메시지가 왜곡되는 것이다.

격조사 이외에도 통사적인 오류로 인해 원문의 내용이 MT에서 다르게 번역된 사례들이 관찰되었다. 가령 예시 6)은 대등적 연결어미 ‘-고’가 이 문장 주부의 일부라는 점을 간과하여 오역이 발생한 예이다. ST에서 1+2는 3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하는데, MT는 1의 연결어미 ‘-고’를 같은 주부인 2가 아닌 3과 대등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1, 2+3’식으로 아이디어를 전개하였다. 아마도 ST의 ‘시작했고’ 바로 뒤에 쉼표까지 나와 있어서 별개의 아이디어로 인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예시 6) T3 연결어미

ST: 1) 최근 한국의 홈쇼핑 회사가 멕시코 방송사와 합작해서 현지 TV 홈쇼핑을 **시작했고**, 2) 이번에 KOTRA와 멕시코 대형 온라인 업체간 협력채널을 구축한 것은 3) 그러한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MT: 1) Recientemente, una empresa coreana de compras desde el hogar lanzó conjuntamente un programa de compra desde el hogar por televisión local con una emisora mexicana, y creo que 3) es un buen intento de 2) establecer un canal cooperativo entre KOTRA y una gran empresa mexicana en línea.

HT: 1) Últimamente, una empresa coreana de compras por televisión

empezó a poner en el aire sus contenidos para los televidentes mexicanos en colaboración con una emisora de México. 2) Además, KOTRA y una firma online grande de México construyeron un canal de cooperación. 3) Todos estos ejemplos son buenos intentos.

의존명사 ‘등’이 열거하는 대상을 오인한 사례도 관찰되었다. 예시 7)는 원문의 ‘ITS 등’에서 ‘등’이 뒤에 나오는 교통인프라 분야를 한정하는 것인데, MT에서 이를 앞에 나온 신재생 에너지, 보건의료, 수자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한 예를 보여준다.

예시 7) T2 의존명사

ST: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건의료, 수자원, **ITS 등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MT: A través de esta cumbre, creo que es un paso muy significativo hacia los cimientos para el desarrollo de asociaciones orientadas al futuro **en infraestructura de transporte, como energía renovable, atención médica, recursos hídricos e ITS.**

HT: Con ocasión de la reunión cumbre, en los sectores de nuevas energías renovables, salud y medicina, recursos hídricos e **infraestructura de tránsito incluido el Sistema de Transporte Inteligente**, se ha cimentado la plataforma a favor de una asociación con proyección al futuro, lo cual calificaría de un avance sumamente significativo.

AI 번역기는 관형절에서 수식하는 대상을 잘못 파악하기도 하였다. 예시 8)에서 ‘쉬운’이 수식하는 대상은 ‘동아시아 시장 진출’인데, MT는 이 관형어를 ‘여건’과 연결시켜 원문과 다른 결과물을 산출하였다.

예시 8) T3 관형어

ST: 동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쉬운 여건**

MT: las **condiciones que son fáciles** de ingresar al mercado de Asia Oriental

HT: las **condiciones que favorecen el ingreso** al mercado de Asia del Este

한국어의 부사어는 그것이 한정하는 말 바로 앞에 오는 것이 원칙이나, 표현 효과를 위해 자리바꿈을 하여 여러 자리에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다(남기심·고영근 1998: 276). 예시 9)의 부사어 ‘앞으로’는 ‘투자 확대’를 한정하기 위해 쓰였는데, MT는 주동사인 ‘기대됩니다’와 연결되는 것으로 오역하였다. HT는 원문의 부사어를 그대로 옮기는 대신 기대를 나타내는 주동사와 종속절에 접속법(subjuntivo)을 사용하여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략을 취하였다.

예시 9) T3 부사어

ST: **앞으로** 멕시코 기업인 여러분의 한국 투자 확대도 기대됩니다.

MT: **En el futuro**, espero la expansión de la inversión en Corea de las empresas mexicanas.

HT: De igual manera, auguro que los empresarios mexicanos **se animen a** invertir más en el mercado coreano.

#### 4.1.2 맥락적 요인

앞서 기술한 통사적 요인 이외에도 원문의 맥락이나 행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배경지식의 부족, 혹은 단락 간 연결성 부족 등으로 내용 오류가 발생한 사례들이 관찰되었다. 예시 10)의 원문은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장이다. 자칫 ‘소비재 교역’과 병렬관계에 있는 대상이 ‘부품 소재와 원자재 교역’이 아닌 ‘양국간 교역’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원문 자체에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전문 번역사는 원래 의미를 헤아려 올바르게 번역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 연설인 경우 발화되는 모든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번역문의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MT는 이러한 맥락 중개를 못 하고 원문의 구조를 그대로 전이시켜 본래 의미를 훼손하였다.

예시 10) T2 행간의 의미 파악 오류

ST: 이는 주로 **부품 소재와 원자재 중심인 양국간 교역**에 더해, 소비재 교역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T: Se espera que esto ayude a impulsar el comercio de bienes de consumo, además del **comercio entre los dos países, enfocado principalmente en materiales de partes y materias primas.**

HT: Con ello se espera fomentar el comercio de bienes de consumo,

además de los repuestos y materiales y las materias primarias que caracterizan el comercio bilateral.

번역사가 사전 조사를 통해 미리 습득한 정보를 활용할 때도 MT와 HT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예시 11)의 ‘국가디지털전략’은 연설이 이루어진 시점에 멕시코 정부가 이미 수립한 것으로, 이를 사전 조사를 통해 미리 알고 있던 통역사는 HT와 같이 ‘수립하였다’로 처리하였다. 원문만 보면 사실 수립한 것인지, 수립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MT는 뒤에 나오는 ‘활용해 갈 것이라고’에 착안하여 ‘수립하다’와 ‘활용하다’를 모두 미래형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예시 10)과 예시 11)은 사실상 현재의 기계번역으로 정확히 번역하기 힘든 경우이다. 이는 인간 번역사가 포스트에디팅을 통해 기계번역의 결과물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예시 11) T3 배경지식

ST: 또한 멕시코 정부는 인프라 확충과 병행하여 “국가디지털전략”을 수립하고, ICT를 사회전반의 혁신에 활용해 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MT: Además, soy consciente de que el gobierno mexicano **establecerá una “estrategia digital nacional”** en paralelo con la expansión de la infraestructura y utilizará las TIC para la innovación en toda la sociedad.

HT: Asimismo, el gobierno de México, al compás de su plan de infraestructuras, **elaboró la Estrategia Digital Nacional**, que consiste en aplicar las TICs en la innovación de distintos aspectos de la sociedad mexicana.

#### 4.1.3 문법적 요인

문법적 요인은 통사적 요인을 제외한 기타 문법과 관련된 오역을 초래한 원인으로, 주로 관사, 시제, 인칭, Se용법, 동사변형, 전치사 등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오류와 관련이 있다.

예시 12) T2 인칭 오류 (생략주어 ‘나’→‘우리’)

ST: (**저는**) 21세기 태평양 시대에 한국과 멕시코가 진정한 동반자이자 친구로서 공동번영의 길을 함께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MT: **Esperamos** que Corea y México sean un verdadero compañero y amigo en la era del Pacífico del siglo XXI.

HT: **Deseo** que en esta era del Pacífico del siglo 21, Corea y México acompañen uno al otro como socios y amigos genuinos en su camino hacia la prosperidad común.

#### 4.1.4 관습적 요인

관습적 요인에 의한 내용 오류는 연설문이라는 텍스트 유형, 즉 장르를 고려하지 않은 때,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인용할 경우 통상 스페인어권에서 사용하는 인용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때 발생하였다. 예시 13)을 보면 MT는 ST의 ‘여러분’이 연설 상황에서 청중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여러+분’을 뜻하는 단어로 치환하였다.

예시 13) T3 장르관습 오류  
 ST: 여러분,  
 MT: Todo el mundo,  
 HT: Señoras y señores,

스페인어에서 속담, 명언 등을 인용할 때 ‘cito textualmente(문자 그대로 인용합니다)’라는 문구를 문장 안에 삽입하는 것이 관례이다. 아래 예시는 이러한 목표 언어의 관습이 MT에서 반영되지 않은 경우이다.

예시 14) T3 인용관습 오류  
 ST: 멕시코 시인 옥타비오 빠스는 “꿈꿔라, 그리고 꿈을 위해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MT: El poeta mexicano Octavio Pas<sup>13)</sup> dijo: “Sueña y trabaja duro por tus sueños”.  
 HT: El gran poeta mexicano Octavio Paz **afirmó, cito textualmente,** “Sueña, y mereces lo que sueñas”.

## 4.2 문장구성 방식의 차이

문장구성 방식의 차이는 오역은 아니나 언어간섭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

로서, 주로 원문의 구조나 형태에 지나치게 충실한 결과 문장구성이 HT와 비교했을 때 개선되는 편이 바람직한 경우로 분류하였다.

### 4.2.1 원문 구조의 무분별한 모방

초보 번역사와 전문 번역사의 번역물 품질 차이는 원문을 해치지 않으면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목표 언어로 변환했느냐에 있다. 매뉴얼과 같이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텍스트일 경우 원문을 직역한 번역이라도 내용이 정확하다면 수용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통령 연설문처럼 문어체와 구어체가 혼합된 텍스트를 번역할 때는 도착어 관습에서 자연스러운 문장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문에 지나치게 충실한 나머지 도착어 언어권의 청중에게 어색한 번역문을 낭독할 경우 자칫 연설문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문의 구조를 탈피하여 의미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문장형태를 변형함으로써 대통령의 메시지를 청중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유도하는 일 또한 번역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다.

그러나 기계번역에 이러한 역할까지 기대하기란 아직 어려워 보인다. 데이터 분석 결과, 오역은 아니나 MT와 HT 간 문장 구성법의 차이를 유발한 주요 원인은 원문의 구조를 맹목적으로 따른 데 있었다. 구체적으로, 도착어인 스페인어의 언어적인 특징을 반영하지 않거나, 자연스러운 번역을 위해 전문 번역사가 주로 사용하는 품사전환 전략이 결여된 경우, 혹은 축사역을 해서 어색한 표현을 사용하고 복잡한 원문의 구조를 비판 없이 모사하여 요점 파악이 어렵게 번역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시 15) T1 목표 언어에 대한 이해 부족  
 ST: (중략) 멕시코 음식과 문화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이해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T: (…) **la comprensión** de los coreanos de la comida y la cultura mexicana se está profundizando.  
 HT: (…) **el público coreano** enriquece día a día sus conocimientos sobre la gastronomía y la cultura de México.

예시 15)의 MT는 원문과 동일하게 ‘이해’를 주어로, ‘깊어지고 있다’를 동

13) 시인의 성(姓) 표기오류는 기계번역 번역물 그대로이다.

사로 설정하였다. 이 문장은 내용상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장을 구성할 때 생물 주어 사용 능동형 문장을 선호하는 스페인어의 특징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다. HT와 같이 ‘한국 국민들이 멕시코 음식과 문화에 대한 지식을 매일 쌓고 있다’ 식으로 문장구조를 바꾸면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번역이 될 것이다.

예시 16)은 품사 전환의 효과를 보여준다. 원문의 ‘적극 참여하고’와 ‘변함없이 지지해 준’은 둘 다 ‘부사+동사’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원문을 그대로 수용한 MT를 보면 스페인어의 부사형 접미사 ‘-mente’가 반복되어 텍스트를 낭독했을 때 지루한 느낌을 준다. 반면, HT는 ‘변함없이 지지해 준’을 ‘변함없는 지지를 제공해 준’으로 번역함으로써 해당 원문의 품사구조를 ‘형용사+명사’로 전환하여 문장구조를 다변화하였다.

예시 16) T2 품사전환 전략 결여

ST: 한국은 그동안 멕시코 정부가 확고한 북핵 불용의 입장 하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1) **적극 참여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2) **변함없이 지지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MT: Corea del Sur ha agradecido al gobierno mexicano por 1) **participar activamente** en los esfuerzos de la comunidad internacional para resolver el problema nuclear de Corea del Norte y 2) **apoyar constantemente** la política del gobierno coreano en la Península Coreana bajo la firme posición de la insolvencia nuclear de Corea del Norte.

HT: Al respecto, Corea manifestó su agradecimiento al Gobierno de México por, bajo el principio de la no tolerancia hacia las armas nucleares norcoreanas, 1) **haberse sumado activamente** a los esfuerzos de la comunidad internacional para resolver el tema nuclear norcoreano y 2) **brindado el constante respaldo** a nuestras políticas relativas a los temas de la península coreana.

예시 17)의 ST는 다수의 연결어미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MT는 ST의 구조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직역하여 내용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서술구조가 길고 여러 아이디어가 뒤엉켜 명료하지 않다. 이와 달리 HT는 원문의 형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MOU 체결이라는 정보를 먼저 제시한

뒤 주동사인 ‘기대합니다’를 접속사 ‘con el cual’로 이어진 문장에 배치하여 번역하였다. 그 결과 원문의 요점을 한결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예시 17) T3 복잡한 서술구조 답습

ST: 1) 오늘 체결된 양국 교통부간 교통인프라 협력과 수자원관리 협력 MOU를 통해 2) 양국이 힘을 합쳐 멕시코 실정에 맞는 스마트 인프라를 개발하고 3) 제3국에도 함께 진출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MT: Esperamos el día en que 2) los dos países trabajen juntos para desarrollar una infraestructura inteligente adecuada a la situación en México 1) a través del memorando de entendimiento firmado hoy para la cooperación en infraestructura de transporte y gestión de recursos hídricos entre el Ministerio de Transporte de los dos países y 3) entrar juntos en terceros países.

HT: 1) El día de hoy, ambos ministerios de Transporte suscribieron el acuerdo de cooperación en materia de infraestructura de tránsito y gestión de recursos hídricos, 2) con el cual espero que se desarrolle una infraestructura inteligente adaptada a la situación de México y 3) que se logre el ingreso conjunto a terceros mercados.

#### 4.2.2 통역모드에 대한 이해 부족

본 연구는 동시통역 형태로 전달된 연설문을 통역사가 사전에 번역한 텍스트와 구글 번역기의 번역물을 비교하여 언어간접이 기계번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역, 특히 동시통역이 개입된다는 것은 번역 작업에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청중이 아닌 독자를 위해 문어체로만 번역할 때 취할 수 있는 문장구성 방식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MT와 HT를 비교분석했을 때 문장구성의 방식이 다른 사례 중 상당수가 통역모드의 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었다. 다시 말해, AI 번역기는 입력된 텍스트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전혀 알 수 없기에 원문 구조를 그대로 옮긴 결과물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반면, 전문 번역사는 해당 텍스트가 동시 모드로 통역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동시통역에 수월한 방식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실제 분석 과정에서 예시 18)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례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일 동시통역을 앞둔 통역사가 시간에 쫓겨 기계

번역을 통해 얻은 예시 18)의 MT를 사용하게 된다면, 연사의 발화가 끝나는 지점 맞추기, 현장에서 수정되는 정보 반영하기 등 동시통역 시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시 18) T2 통역모드에 대한 이해부족

ST: 또한 **안보, 개발, 기후변화, 유엔 개혁 등 양국이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국제사회 전체의 입장과 이익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MT: Además, cooperamos para desarrollar soluciones racionales que satisfagan las posiciones e intereses de toda la comunidad internacional **en asuntos compartidos por los dos países, como la seguridad, el desarrollo, el cambio climático y la reforma de la ONU.**

HT: Asimismo, **con respecto a los temas como seguridad, desarrollo, cambio climático y la reforma de la ONU donde ambas partes comparten los intereses,** acordamos cooperar en la búsqueda de soluciones razonables que respondan a la posición general y los intereses de la comunidad internacional.

통역모드 인지 여부는 인간번역과 기계번역의 필연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국 기계번역이 상황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원문 구조만을 좇는 현상을 언어간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역모드에 대한 이해 부족 범주를 포함시킨 것이다.

#### 4.2.3 담화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본 연구에서 분석한 텍스트는 공식오찬, 공동기자회견, 비즈니스포럼이라는 담화상황에서 대통령이 낭독한 연설문이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어휘와 격식성, 수사적인 표현을 살린 번역이 요구된다. 텍스트의 유형과 장르관습에 맞게 번역을 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등가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MT는 대통령 연설문에 기대되는 격식적인 표현 및 수사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결과물을 보였다. 특히 정보 전달의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공동기자회견이나 비즈니스 포럼에서 사용된 연설문에 비해 오찬사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더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아래 예시들은 원문의 피상적 표현에만 충

실한 나머지 원문의 격식성과 수사적 효과가 MT에서 모두 반감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언어권마다 이러한 유형의 텍스트에서 선호되는 표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이다. MT와 대조적으로 HT는 원문에 없는 표현을 첨가하여 연설문의 장르적 특성을 문체에 담아냄으로써 대통령 담화의 텍스트 기능을 충실히 하고자 하였다.

예시 19) T1 격식성과 수사적 효과

ST: 유서 깊고 아름다운 대통령궁에서 성대한 오찬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T: Gracias por brindar un gran almuerzo en el histórico y hermoso Palacio Presidencial.

HT: **Lo primero sería expresar mi agradecimiento** por este magnífico almuerzo **que amablemente nos ofrecen** en este Palacio Presidencial **que ostenta** una larga historia y extraordinaria belleza.

예시 19)의 MT가 원문을 그대로 옮겨 감사의 표현을 구어체로 매우 단순하게 처리한 반면, HT는 감사표현의 격식을 유지하는 동시에 ‘친절하게도 베풀어주신’, ‘깊은 유서와 뛰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등의 수식어를 첨가하여 수사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예시 20)도 이와 유사한 사례이다.

예시 20) T2 격식성과 수사적 효과

ST: 이번 방문일정을 세심하게 준비해주신 **페냐 니에또**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멕시코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 국민들의 따뜻한 인사와 우정을 전합니다.

MT: Quisiera expresar una vez más mi gratitud al presidente Peña Nieto, quien preparó cuidadosamente esta visita, y quisiera expresar mi cordial saludo y amistad al pueblo mexicano.

HT: **Aprovecho para reiterar mi gratitud al Presidente Peña Nieto por todas las atenciones dispensadas durante mi visita,** y transmito los saludos afectuosos y **el gesto de fraternidad** de nuestros ciudadanos al pueblo de México.

## 5. 결론

지금까지 대통령 연설문의 기계번역 오류를 인간번역과의 비교를 통해 언어간섭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출발어의 언어간섭에 의해 발생한 오류는 크게 내용 오류와 문장구성 방식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었다. 내용 오류, 즉 오역을 야기하는 원문의 요소를 분석한 결과 통사적 요인, 맥락적 요인, 문법적 요인, 관습적 요인이 관찰되었다. 분류한 요인들은 모두 원문에 형태적으로 드러나 있거나(통사적, 문법적 요인) 묵시적으로 내포되어(맥락적, 관습적 요인) 있었다. 두 경우 모두 번역사의 올바른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인간번역과 기계번역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장구성 방식의 차이는 주로 MT와 HT 간 비교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내용상 결함은 없으나 도착어 관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자연스러운 번역이 된 사례들이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원문의 표면적인 구조만 좇은 결과이므로 문장구성 방식의 차이 역시 언어간섭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스페인어의 언어적 특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원문 구조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동시통역 형태로 번역문이 사용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대통령 연설이라는 높은 격식성이 요구되는 담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점도 문장구성 방식에 있어 기계번역과 인간번역 간의 격차를 넓히는 요인이었다.

기계번역의 오류를 유형화한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격조사, 연결어미 등의 통사적 오류가 본 연구에서도 관찰되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통사적 오류보다는 다의성이나 중의성에서 비롯되는 어휘 오류가 부각된 것과 달리, 본 연구의 분석결과 통사적 요인이 기계번역의 오류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계번역의 오류를 내용적인 측면과 문장구성 측면으로 구분하고, 연설문이라는 텍스트의 관습적 요인, 통역 모드와 담화 상황에 대한 고려를 논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분석 방향을 달리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텍스트에 숨겨진 여러 차원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여 텍스트가 본래의 기능을 다 하게 하고, 원문과 번역문의 등가도 온전히 구현하는 인간번역의 능력이 아직은 기계번역보다 우세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분석결과를 향후 프리에디팅 또는 포스트에디팅에 활

용한다면 기계번역의 결과물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한 데이터의 양이 적고 분석방식도 연구자 주관에 개입된 여지가 있어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후속 연구 시 코더의 수를 늘리고 분석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설문이 통번역 교육과 실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기계번역 연구로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아울러 텍스트 유형을 막론하고 스페인어 기계번역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실제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을 비교한 용례를 소개한 본 연구를 계기로 기계번역 연구의 저변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기유미 (2018) 「한중 기계번역 오류의 문형별 비교분석 —네이버 파파고 번역기와 구글 번역기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74: 3-32.
- 김동미 (2018) 「인공지능과 인간의 문학(時)번역 작품 비교 연구: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5): 67-82.
- 김영주 (2013) 「스페인어권 대통령 취임사의 문체 분석」, 『한국수사학회』 18: 87-113.
- 김영주 (2019) 『보도문 한-서 번역의 테마 구조 비교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철휘 (2015) 『통하는 말 통하는 글』, 서울: 행복에너지.
- 남기심, 고영근 (1998)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노지은, 이지민 (2015) 「치과 수술동의서의 한영번역 연구: 전문어 및 형식적 장르관습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9(4): 93-121.
- 박세리 (2015) 「통역 교육 텍스트로서 한국어 연설문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통번역학연구』 19(1): 81-103.
- 서보현, 김순영 (2018)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유형 고찰」, 『번역학연구』 19(1): 99-117.
- 이미경 (2019) 「기계번역 vs. 인간번역, 텍스트 모호성 해소를 위한 전략 고찰

- 연설문 번역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0(2): 687-700.
- 이성화, 김세현 (2018) 「영-한 및 한-영 기계번역 품질향상을 위한 프리에디팅 기법 제안」, 『번역학연구』 19(5): 121-154.
- 이상빈 (2018) 「학부 번역전공자의 구글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관한 현상학 연구」, 『통번역학연구』 22(1): 117-143.
- 이상빈 (2020) 「기계번역에 관한 KCI 연구논문 리뷰: 인문학 저널 논문 (2011~2020년 초)의 논의내용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2(2): 75-104.
- 이익섭 (2005) 『한국어 문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임효상 (2008) 「한-스페인어 기계번역에서 나타나는 제반 특징에 관한 연구」, 『한 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47-154.
- 진소영 (2019) 「아랍어-한국어 기계번역의 오류 유형 및 해결방안」, 『아랍어와 아랍문학』 23(4): 53-69.
- 최문선 (2013b) 「통역 교육에서 출발텍스트 선정과 난이도 고려에 대한 소고」,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15(2): 249-278.
- 한현희 (2016) 「정치언어로서 러시아어 차용어의 수사적 사용 의미와 통번역 교육」, 『통번역학연구』 20(1): 197-228.
- 한현희 (2019) 「한노 기계번역의 오류 유형화 및 품질 개선을 위한 프리에디팅 (pre-editing) 규칙 제안」, 『통번역학연구』 23(3): 291-327.
- 홍은영, 탁진영 (2020) 「인공지능시대의 번역: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2): 1531-1544.
- Aranberri, Nora (2014) ‘Posedición, productividad y calidad’, *Tradumàtica* 12: 471-477.
- Hatim, Basil and Ian Maso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Essex: Longman.
- Hatim, Basil and Jeremy Munday (2004) *Translation: An advanced resource book*,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ópez-Pereira, Ariana (2019) ‘Traducción automática neuronal y traducción automática estadística: percepción y productividad’, *Traumàtica* 17: 1-19.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Nida, Eugene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principles and procedures involved in Bible*, Leiden: E.K. Brill.
- Sánchez-Gijón, Pilar (2016) ‘La posedición: hacia una definición competencial del perfil y una descripción multidimensional del fenómeno’, *Sendebarr* 27: 151-162.
- Torres-Hostench, Olga, Marisa Presas and Pilar Cid-Leal (2016) *El uso de traducción automática y posedición en las empresas de servicios lingüísticos españolas: Informe de Investigación ProjectA 2015*, Bellaterra: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third edition,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Reiss, Katharina and Hans J. Vermeer (2010) 일반 통번역 이론 기초 [Grundlegung einer allgemeinen Translationstheorie], (안인경, 정혜연, 이정현 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원저 1984 출판).
- Zhang, Hong and Olga Torres-Hostench (2019) ‘Cómo enseñar posedición de traducción automática a una segunda lengua: una propuesta didáctica para el aprendizaje de lenguas’, *Tradumàtica* 17: 153-161.

[Abstract]

**An Analysis on Aspects of Language Interference in  
Korean-Spanish Machine Translation of Presidential Speeches:  
comparing with human translation**

Kim, Youngjoo  
(Duksung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language interference on machine translation. For this purpose, three speeches delivered by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were analyzed, as well as their human translations and Google Translate output in Spanish. The analysis revealed that language interference affects the quality of machine translation in two aspects: it causes mistranslation, mainly due to a wrong interpretation of syntactical structure of the source text, lack of contextual understanding, grammatical errors and conventional factors. On the other hand, the interference leads to an unnatural translation in terms of sentence organization, which reflects an excessive copy of the original structure and machine's unawareness of the mode how the TT is delivered and how the ST is perceived as discourse and genre.

▶ **Keywords:** language interference, machine translation, presidential speeches, genre-oriented translation

▶ **주제어:** 언어간섭, 기계번역, 대통령 연설문, 장르번역

김영주

덕성여자대학교 스페인어과 강사

celestekim00@gmail.com

관심분야: 기계번역, 뉴스번역, 장르연구, 통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20년 9월 6일

심사완료일: 2020년 9월 22일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8일